

블론 세이브 없는 KIA 철벽 불펜

마무리 정해영, 8세이브로 1위...최지민은 2세이브 3홀드

전상현 6홀드·장현식 4홀드·곽도규 8⅓이닝 무실점 호투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 대 키움히어로즈의 경기, 9회 초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역투하고 있다. 2024.03.23.

KIA 타이거즈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고공행진의 중심에는 견고함을 뽐

낸 철벽 구원진이 있다. 시즌 초반 호랑이 군단의 포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즌 전적 14승 4패로 순위표 최상단에 자리했다. 더욱이 연승 행진을 '6'까지 늘리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 중이다.

팀의 선두 등극에 공헌한 불펜 투수들의 활약상을 빼놓을 수 없다. KIA는 팀 불펜 평균자책점이 2.57로 전체 1위에 올라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더구나 블론 세이브(세이프 실패)가 없는 유일한 팀이다.

세이브부문 1위에 오른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든든하게 뒷문을 지켰다.

올 시즌 8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달성했고, 8⅓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단 한 점도 헌납하지 않았다. 4월 5 경기에서는 무사사구 투구를 펼쳤다.

거침없는 세이브 행진을 펼치고 있는 정해영은 통산 100세이브까지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필승조 전상현과 최지민, 장현식

의 투구도 돋보였다.

주로 8회에 등판하는 셋업맨 전상현은 홀드 6개로 팀 내 가장 많은 홀드를 적립했고, 최지민은 3홀드 평균자책점 0.93의 호성적을 거뒀다.

최지민의 경우 세이브 2개를 수확하며 마무리 임무를 완수하기도 했다. 장현식은 4홀드 평균자책점 1.04로 활약했다.

올해 KIA 마운드의 히트 상품은 좌완 불펜 곽도규다. 이번 시즌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 11경기에서 8⅓이닝 6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삼진을 무려 14개나 잡아냈고, 홀드도 4개나 쌓았다.

경쟁력을 입증한 곽도규는 팀 내에서 전상현과 함께 가장 많은 경기에서 나설 정도로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좌타자를 상대하는 왼손 투수 이준영과 지난해 16홀드를 따낸 전천후 자원 임기영도 불펜 마운드를 지탱한다.

이준영은 올해 2⅓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영구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임기영은 복귀 후 구원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뉴시스



19년만에 아시아선수권 여자 복식 우승, 백하나·이소희 귀국 중국 남보에서 열린 2024 아시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백하나(왼쪽)와 이소희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 성료

광주·전남 테니스 동호인 800명 참가



나주에서 열린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나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나주시립테니스코트 등 10개소에서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남자오픈부, 남자일반부, 여자오픈부, 지도자-동호인부는 목포청솔클럽 소속 양동복 선수와 현대삼호클럽 소속 양한식 선수가 각각 우승컵을 들었다. 이 대회에는 최근 빛가람혁신도시의 젊은 세대층을 중심으로 테니스 열풍이 부는 만큼 나주시의 테니스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테니스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에 임해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이 나주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허필수 기자

순천FC U-15 최건민 남자 U-15 국가대표 선발



순천시는 순천FC U-15 소속 최건민 선수가 남자 축구 U-15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2009년생으로 매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건민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집훈련에 참여해 그 실력을 인정받아, 12일 22명으로 이뤄진 U-15 대표팀에 선발됐다.

U-15 대표팀은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2개국 참가 이탈리아 토르네오 국제 축구대회에 참가한다.

제63회 전남체육대회, 15년만에 영광서 '광파르'

육상·수영 등 총 24개 종목·22개시군 7300여명 참가

태권유지컬·성화점화·다이나믹듀오·다비치 등 축하공연

올해로 63회째를 맞은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이자 도내 가장 큰 축제인 전라남도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빛' 영광군에서 나흘간 개최된다.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여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전남체육전은 22개 시·군에서 731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배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족구, 개최지인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종목(게이트볼) 등 총 24개의 종목이 28개의 경기장에서 각 시·군 대표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2009년 제 48회 대회 개최 이후 15년만에 영광군에서 개최되며 '성공·행복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

전', '화합·희망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영광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마쳤고,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영광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 숙박업, 음식점업 정비를 통해 선수단 불편을 최소화,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즐길수 있는 다양한 시·군 홍보존, 부대행사존, 스포츠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회식은 시·군별 선수단인장을 시작으로 의식행사(개회선언, 환영사, 기념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체육인현장 낭독, 선서)와 주제 공연인 태권유지컬,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 기자



성화점화 최종 주자로 영광이 고향인 은혜적 전 서울 삼성 썬더스 감독이 나서며, 개회식 후 축하공연에는 다이나믹듀오, 다비치, 육종환 밴드, 요요미, 반가희 등 축하공연이 준비되었다. /김호 기자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중흥3차 옆)

NAVER 삼형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좋아요